

## 목차

생명의 죽음	이종형 목사님
약하나 지혜 있는 은혜	김문봉 목사님
한국 이주민과 한국인 교회(1)	유병춘 원로 목사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최의식 창조과학회 회장
모순과 역설	변정민 교우
숨은그림찾기	성계용 집사
크리스찬 유머	편집부
영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전성균 장로님
고 최인영 권사님을 추모하며	유병춘 원로 목사님
고 권승림 장로님 영전에	전성균 장로님
고 이윤호 장로님 영결 예배 기도문	권학주 장로님
고 이윤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오인성
고 이윤호 장로님 입관예배 기도문	정총해 장로님
고 이윤호 장로님 하관예배 기도문	이주인 장로님

## 생명의 죽음

이종형 목사님

많이 춥던 미네소타에 새 봄이 찾아 오고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겨우 내내 죽음 같이 앙상하던 나무에 생명의 기운이 올라 새 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바람이 생명을 깨워 일으키는 것입니다. 방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즐겨 밖으로 나와 가슴을 펴고 길게 호흡하며 대기를 즐깁니다. 이웃에 나와 노는 아이들의 소리는 그들이 힘차게 뻗어 자라남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새들은 생명의 번식을 위한 등우리를 틀고자 이리 저리 분주히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희망찬 계절은 추운 겨울을 가진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일년 내내 같은 절기라면 이런 아름다움과 생명의 힘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오면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으며 나무가 잎새를 떨어뜨리며 죽음 같은 동면으로 들어지만 그것은 생명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죽음을 맞음은 슬픈 일이지만 곧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10:39) 고 말씀하심은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생명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자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 나리라 (막9:31) 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삶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온 것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속물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가 하신 일을 인정하여 그를 믿고 받아드리기만 하면 그가 뜻하신 일이 적용되어 어떤 죄든지 용서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생명의 죽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전제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살아난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그도 죄인인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남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인류의 구주로 확인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인간의 형벌을 대신할 길이 없기에 죽은 것이고 또 죽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기에 그는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은 새 생명을 위한 죽음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교회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신 장로 중에 이윤호, 한화석, 권승림 세 장로님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야만 하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주님께로 인도하며 섬기신 사람들 중에 생명을 얻은 자가 많습니다. 섬긴다고 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으로 죽는 것이나 다름 없지만 그 섬김과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제 그들의 대를 이어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생명 얻어 남은 자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삶을 닮고 그의 뒤를 따라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삶이 아닐까요?

### **약하나 지혜 있는 은혜(잠 30:24-28)**

김문봉 목사님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잠언 30 장 24-28)

우리는 힘든 인생살이를 살고 있다. 어디를 가나 경쟁을 해야하고 다른 사람보다 올라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가슴을 졸이며 살게 된다.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앞에는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고 한숨을 돌리기가 싫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힘든 이 인생살이를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강한 자를 우리의 표본으로 삼는다. 혹은 재물을 많은 사람을 본받아 돈 많이 버는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혹은 권력자의 뒤줄에 서 보기도 한다. 확실히 강하고 재물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강하고 뛰어난 사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자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두를 창조하셨다.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누르고 이용하라고 하나님은 의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신다.

미물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까? 어른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며, 학식이 많은 자는 학식이 부족한 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긴다. 지위가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로부터,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로 부터,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게서부터 지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강하고 부한 나라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게서 배울 지혜가 있겠느냐고 거만을 떠다. 그러나 잠언의 본문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운다. 작으면서, 그리고 미물이라고 업신여김을 받는데도 그 업신여기는 존재보다 더한 지혜가 있는 경우를 통해 말씀은 우리의 허망한 교만을 기습해 들어온다. 아, 이 기습당하는 기쁨이여!

본문에서 들고 있는 짐승은 넷이다. 개미와 오소리와 메뚜기와 도마뱀. 개미는 한 발에 밟힐 뿐이며, 오소리는 사냥개 앞에서 죽은 목숨이고, 메뚜기는 일용할 양식이며, 도마뱀은 꼬리가 끊어져라 도망가는 일에 바쁘다. 한결같이 미약한 존재이자, 상대를 압도할 힘이 없다. 그러나 가만히 따져 살펴보면, 이들 미물이 당하고 처한 처지는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고비 고비이다. 기껏 주어진 기회를 어리석게 탕진하고 비틀거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위협을 당하여 안전을 도모할 곳이 없다. 상처받아 마음의 문은 닫히고, 이끌어 주는 이가 없어 어디로 가야할지 방황한다. 쫓기는 자가 되어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 꼬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야 만다.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하며, 그런 도전의 풍파 앞에서 우리 인생의 호흡을 제대로 가다듬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개미는 그 풍요의 계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그는 예비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표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예비함은 모두 자신의 손으로 욕심스럽게 굶어모아 비가 오는 때를 대비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때가 바로 그 예비함으로 주신 은혜의 시각임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름의 풍요는 바로 그 예비해주심의 근거이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은혜를 탕진해 버린다. 요셉은 7 년의 풍요 속에서 예비하는 자의 지혜를 발휘하여 7 년의 양식으로 14 년을 견뎌낸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흘려 올린 부를 예비하는 자의 감사와 지혜가 없어서 마구 까먹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곤경에 처하고 있지 아니한가.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위해 믿음을 예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길 그때가, 감사하게 예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개미를 밟지 말라.

오소리는 바위틈에 집을 짓는다. 자신이 안전하게 거할 곳을 아는 자이다.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자리를 틀고 그곳을 안전지대로 여기다가 무너지는 자가 적지 않다. 권력의 줄을 잡으면, 재물의 창고열쇠를 쥐고 있으면, 명예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바로 그곳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겠거니 한다. 그러나 권력으로 몸을 망친 자가 적지 않고, 재물로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며, 명예로 도리어 수치를 불러들인 자가 또한 적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바위틈에 집을 짓는 지혜이다. 이 지혜가 흔들리면 신앙인들조차도 미신과 부적과 환상과 사술의 틈에 집을 짓는 비극을 겪는다. 오소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신이 남을 속일 때의 쾌감과 그 성공의 절정을 향하는 자신만을 생각해 왔지 그것이 타자에게 주는 고통을 주의깊게 보지 못했다. 그 속임이 다른 이에게 어떤 인생의 뼈아픔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지 그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주도하는 자였지 주도당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로부터 그 주도권을 박탈해 버리셨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진정한 주도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야곱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은 상처를 받고 좌절의 고개를 넘다보면 외롭고 누군가와 의 만남을 원하는 듯하지만, 도리어 그 존재는 딱딱한 조개껍질에 싸여 남을 향한 통로를 닫고 만다. 그러면서 남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더더욱 자신의 껍데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변해 버리고 만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메뚜기는 함께 사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 약할수록, 함께 사는 지혜의 기쁨이 풍성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도리어 홀로 되고 있으니 메뚜기가 우리의 선생이 되고 있다.

도마뱀은 도망다니는 뱀이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왕궁으로 드나드는 길을 아는 존재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지켜주고 숨겨줄 존재와의 관계가 남다르다. 아무도 그가 왕궁을 드나드는 줄 몰랐으나, 정작 그의 뒤에는 왕이 있었다. 삼엄한 경계망도, 위엄에 찬 시위대도 그가 드나드는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로 그 인생이 판가름난다.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가 되는 것뿐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우리의 막강한 후원자이신 하나님! 그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미물 속에서 드러내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찌우게 하는 양식 (보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에 증거되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위험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지 기억하라.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다: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전 9:17-18)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시간과 변화가 혼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작용하실 것을 믿는다. 역대하 20:15 에서 선지자 야하시엘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힘과 권력이 전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 인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빙하신다. 우리가 사회에서 불안하고 처해진 환경에서 작게 느껴진다면 부지런한 개미와 안식처를 찾는 사반, 질서있는 메뚜기, 대담한 도마뱀에게서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과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고후 6:9-10)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 한국 이주민(디아스포라)과 한국인 교회(1)

창세기 12:2-3, 히브리서 11:8-11

유병춘 원로목사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 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세기 12:2-3)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줄 앎이라(히브리서 11:8-11)

## 들어가는 말

이민 일세 교회의 목회는 오고 오는 후손들에 대한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다. 이민 일세와는 달리 후손들은 자신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민 일세 교회가 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한다. 1990년 1월 1일에, 미네소타 제일장로교회(김상의 목사)와 투원시티 장로교회(유병춘 목사)가 후손들을 생각하며 통합하고 그들을 위한 시설을 갖춘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 영어세대 교역자, 장로, 집사를 선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합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주민이 꿈을 안고 이주한 미국은 언어와 문화,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이러한 삶의 현장을 모르고 하는 이민목회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과 처방도 없이 치료하겠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민목회 철학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는 말씀을 근거해서 설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

## 교회의 표어

- 1)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교회”
- 2)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교회”
- 3) “우리의 고향이 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참 좋은 형제자매들과 이민 일세 교회를 섬긴 것을 함께 감사한다. 특별히 은퇴 후에 이민에 대한 과제를 안고 홀러신학교외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한인(배달민족) 이주를 연구한 것을 나누어 보고자 이 지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에덴(낙원)에서 쫓겨나 온 세상으로 흩어져 이주민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9-10)고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죄로 죽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었다(빌 2:6-8).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눅 24:49).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오셔서 역사하셨다.(행 2장)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주민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인류는 전 세계로 이주가 많아졌다. 반만년 한반도를 떠날 줄 몰랐던 배달민족이 오대양 육대주에 일천만명(유학생, 주재원)흩어져 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북한을 통해서, 자유주의 국가에는 한국을 통해서 이주해 살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벌목을 하며, 알프스 산 꼭대기와 클레르린 광장에서 물건을 팔고, 암스텔담에서 식당을, 아이스랜드에서 원양업을 하며,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을 들어쓰신 것처럼 21세기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인을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히 이민 일세



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된다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이주자가 세상적이고 물량적인 것에 관심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주해 사는 사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과 자기 고집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한국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불러 가르쳐 파송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졌고,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가정과 이웃과 사회, 자연과 세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사역해야 한다.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육하는 장이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 자기는 ‘모태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갈 1:15)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이다.

#### 1.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육의 장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디에 있고, 누가 통치하고,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과 그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다.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절)고 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고후 4:7-10)고 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진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다. 하늘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 2. 하나님의 나라

천당, 천국(Kingdom of Heaven)을 사람이 죽은 후에 가사는 곳, 부활해서 사는 좋은 곳으로 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낯선 신학적인 용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 극락, 천당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미래적인 천국관, 영적인 천국관에 젖은 신자들에게는 실생활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왕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뜻하며, 그 통치권은 천하 만물과 온 인류와 온 나라와 역사에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있을 또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직접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양상을 살펴보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모습, 이스라엘 국가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권의 모습,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한 통치권의 모습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권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1)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다.(창 12:2-3)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 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을 믿고 언약과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 곧 예수의 나라로 부르게 되었다.(마 13:41, 16:28, 20:21, 눅 23:42).

이 땅에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짐을 보이셨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되시었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화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찾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 크게 자라고,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고 변케하는 누룩처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마13:44-46, 31-33).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자를 자유케함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마 11:20-21, 12:29, 눅 10:9, 17, 11:20).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해는 시간성이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2천년 전에 이미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연속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재림에서 온전히 성취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은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눅22:29-30).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다.

21세기를 맞아 지구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구조가 무너지면서, 강대국의 지구촌 시장화의 논리에 따라 세계질서는 새롭게 편성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질서와 유통구조는 인류에게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대화 되어 가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인간은 한갓 성장의 도구로 전락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

고 공해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파괴로 지구촌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나 G8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에서 온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는 자국 경제의 존립과 생존을 위한 항거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복제동물이 만들어지고, 복제인간의 탄생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의와 평화는 점점 소멸되어 가고 윤리와 도덕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첫째, 제자를 양육하는 일,  
둘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  
셋째,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하신 목적과 비전(Vision)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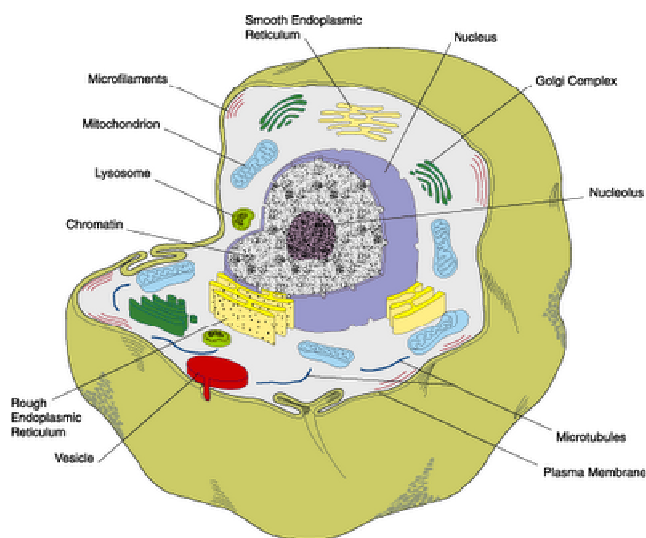
<연재 글로 다음호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최인식 창조과학회 회장(의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 계신다(유신론), 안 계신다(무신론), 알 수 없다(불가지론)이다. 여기서 첫째로 유신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분리된, 즉 우주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무신론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서양의 무신론은 유물론적인 경향이 있는 자연주의인가 하면 동양의 무신론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범신주의이다. 서양의 자연주의 사상이 바탕이 되어 19세기에 생명의 근원에 관한 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진화론이다. 현대과학주의적인 자연주의자들의 결핍된 영성은 결국 허무감을 초래한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대신 동양의 범신주의를 도입하여 생긴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다. 자연주의나 범신주의의 신은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 셋째로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은 불가지론을 주장한다. 결국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성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방법론적인 회의에 빠져 있는 이들의 태도는 ‘모른다’로 일관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무에서 끌어내시고 2백억 광년의 반경을 가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가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는게 당연하다. 우리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특별계시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특별계시는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또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은 일반계시다(롬 1:20). 이 말씀대로 우주만상은 창조주의 숨씨를 드러낸다. 과학적인 조사나 증명이 진정 필요 없다.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보통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반계시의 예를 몇가지 들자면, 첫째로 어길 수 없는 자연법칙과 둘째로 생명체의 신묘막측한 설계와 정보 및 기능이다.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하는 자연법칙이 많이 있다. 중력의 법칙, 전자기장, 원자와 전자간의 강한 상호작용 등이다. 우주만상이 법칙들을 어김없이 따른다. 우주적인 인과 법칙에 의하면 시작없는 결과는 없다. 법칙은 법칙을 만든 자를 나타내고 설계는 설계자를 나타낸다.

봄이 오면 이제 튼튼이나 수선화의 새순이 얼어붙은 땅을 깨고 당당하게 올

라 온다. 푸른 들판 위를 뛰어 다닐 토끼들이나 나무둥치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할 다람쥐들이 눈에 선하다. 이러한 생명들이 햇빛과 수분이 있으면 그냥 발생한다는 얘기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복잡한 설계와 포함된 정보와 기능을 자연현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환원불가능의 복잡성을 보일 뿐이다. 사람의 세포 내에 있는 핵산은 모두 32억 쌍의 특수 암호로 나열되어 있다. 이것을 모두 풀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5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들 암호로 된 정보들이 자연발생할 수가 도저히 없다. 사람의 손가락은 일정한 길이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귀구멍보다 더 가늘어서 귀 안의 고막을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더욱 신묘한 것은 삼 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뇌다. 우주의 천상계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가 뇌라고 한다. 또한 마음(heart)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성, 감정, 의지,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과 절대적인 완전함, 선함 그리고 영원함 등을 사모하는 능력 등등,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왔을까?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자 없이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바로 보인다. 제자리에 놓였다는 뜻은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서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화론은 사실 엄청나게 왜곡한 이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9)

## 모순과 역설

변정민 교우

아마 우리 모두는 학창시절에 모순과 역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모순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contradiction 이며 이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모순(矛盾)은 '창 모'자와 '방패 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중국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창이 못뚫는 방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패를 뚫을수 있는 창은 없습니다!"

그 때 한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상인은 줄행량을 쳤다고 한다.

역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paradox 이며 이는 앞뒤의 말 자체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일종의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법이다. 예를 들어 '작은 거인'이라는 말은 일단 겉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다. 거인이 어떻게 작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체격은 왜소해도, 외모는 볼품 없어도 그의 능력과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매우 집약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사람은 키는 작아도 실력이 훌륭하다는 직접적인 설명보다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하겠다.

나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신앙 성장이 바로 이 모순과 역설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한다. 성경을 읽게 되면 언뜻보면 서로 모순되거나 일반 사람들의 이치에 맞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되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찾게된다."(마 16:25)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마 23:12)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 20:17)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모순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는 구절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마 5:39-40)는 구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한국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다는 성공비결이나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나 전통적으로 항상 필독서였던 손자병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심지어는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하였다는 유교의 경전들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성경의 구절들은 실패하는 인생으로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실패가 뻔해보이는 가르침에 인생을 걸게 되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진리를 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며 또한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설은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나은 생명의 삶을 얻게 된다고 가르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고 말한다.

믿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참으로 두렵고 주저되는 가르침이다. 이 바쁘고 험난한 세상에서 단기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기 딱 좋은 처세의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올해로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22 년이 되었다. 아직도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믿고 맡기기가 주저될 때가 많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나 거의 매일 도전을 받는다. 벌써 20 년 이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또 체험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 더 나은 것을 얻고 채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마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성경공부를 해 왔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고, 주일학교와 교회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 만큼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실패를 맛보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그래서 피해 의식이 생기고 또한 한편으로는 좋은게 좋다는 식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어 때로는 내가 역설이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주님의 말씀들이 모순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구절이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자기를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를 포기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그들을 쓰시지 아니하였고 많은 인물들이 받은 축복을 놓지게 되고 대중들에게 해악을 주며 심지어는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역설적 진리가 모순처럼 다가온다면 아마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 그리 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의 자기 부인에 관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나에게도 진리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깨달음들을 통해 더욱더 비워지고 또 그래서 채워지는 축복이 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해본다.



## 숨은 그림찾기

성계용 집사



옆의 그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회 seal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도 이 seal이 표지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성가대 가운에도 그리고 교회 주소록에도 이 seal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seal에는 여덟가지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설교단, 비둘기, 물고기, 성경, 잔, 불꽃, 삼각형 등인데 오랜만에 숨은그림 찾기하듯이 먼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이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려 드리고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계속 읽으시기 전에 우선 숨은 그림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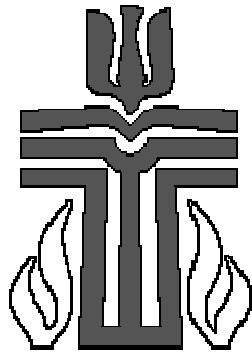
오랜만에 해보신 숨은 그림 찾기 재미있으셨나요? 찾기 쉬운 것도 있지만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주저하기도 했지만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 seal의 배경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몇 자 더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처럼 하나로 통합된 것은 1983년의 일입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남북전쟁을 통하여 여러 개로 갈라졌던 미국장로교회는 무려 122년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하고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연합된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표상을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장로교 총회는 유명한 디자이너 8명을 섭외한 끝에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말콤 그리어(Malcolm Grear) 교수에게 이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2년간 무려 4천 여장의 도안을 그려진 후에 최종안이 나오고 이는 1985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196차 미국장로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seal)은 이렇게 장로교회의 연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숨은 그림들을 함께 찾아보고 각자가 상징하는 것들을 알아볼까요?

## 1.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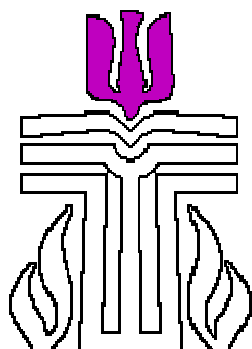


십자가는 비교적 찾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죄인을 못 박아 처형하던 형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갈 2:20)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빈 십자가는 빈 무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눅14:27, 마 10:38, 막8:34).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위의 심볼에서 1)죽어야 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의 모습, 2)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3)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비어 있는 십자가, 4)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십자가를 찾을 수 있으셨다면 100점.

## 2. 비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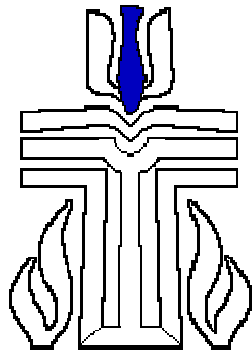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날아가고 있는 도안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리한 홍수 끝에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창

8:8-11). 비둘기는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비둘기는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물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로 모든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고후 5:18). 비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리고 우리와 모든 사람 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마3:16).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와 감화와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 3. 물고기



아마도 위의 심볼에서 가장 찾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였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비둘기에서 날개를 제거하고 나면 보입니다. 물고기가 비둘기 속에 숨어 있어서 심볼 가운데서 찾기 어려운 표상 중에 하나란 것에는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로마의 박해가 심하던 초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던 은밀한 비밀 표상이었거든요. 유명한 기독교 영화 쿠오바디스에서 주인공 리지아가 네로의 궁궐에 끌려가서 황제의 연회에 나가기 위하여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치장을 할 때 시녀 중 한 명이 재빨리 손가락으로 물고기 표상을 그려다가 지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리지아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가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한 비밀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화살표처럼 물고기 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계속 따라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비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비밀리에 알리던 표상이 되었을까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ΙΧΘΥΣ)**입니다. 이 단어의 각 철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의 머릿글자에서 따온 것입니다

**I**ησους(예수스-예수)

**X**ριστος(크리스토스-그리스도)

**Θ**εος(데오스-하나님)

**Υ**ιος(취오스-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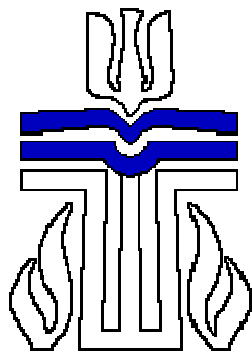
**Σ**ωτηριας(소테리아스-구세주)

그래서 초대교회시대에 물고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로 사용된 암호이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의 심볼에 그려진 물고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막 1:17)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 4.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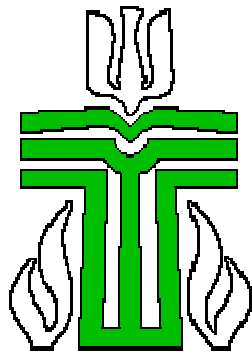
대요리문답[신앙고백서 7.113]에도  
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 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시하던 사제들과 교부들의 가르침, 전통과 전승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로 믿고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의 핵심적인 표어 중 하나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e)”이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을 “신앙과 복종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의 우리 교단의 심볼에 그려진 성경이 펼쳐진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한 주일에 몇 시간 동안 펼쳐져 있습니까?

또한 위 심볼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성경책 위에 내리듯 그려진 것도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딤후3:16).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 5. 설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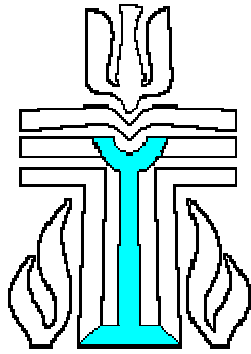
설교단은 개신교 예배와 신앙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해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 중심의 예전(禮典)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미사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되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무척 적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과 함께 나누는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삼아 기독교 예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서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되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혼자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앙심이 깊은 분들 가운데 목회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서만 말씀을 오래 읽다보면 드물게 복음을 곡해하여 이단들과 같이 믿음이 변질되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에 의해 준비된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은 결길로 나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정

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 6. 잔



잔도 찾기 쉬운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잔은 **성만찬과 세례**를 상징합니다. 잔이 여러 그림 중에 묻혀서 찾기 어려운 것처럼 주의 성만찬도 자주 행해지는 예식이 아니라서 자칫하면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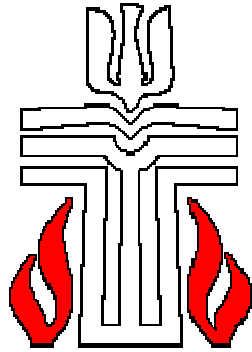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하시

고, **잔**들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28).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구속과 구원의 새 언약(렘31:31-34)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 받은 새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잔(세례반)은 또한 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롬6:3-5)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갈3:26-27). 이 의식으로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상징하는 잔이 심볼의 가장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 속에 위치하는 것은 의미가 무척 깊은 것 같습니다.

## 7.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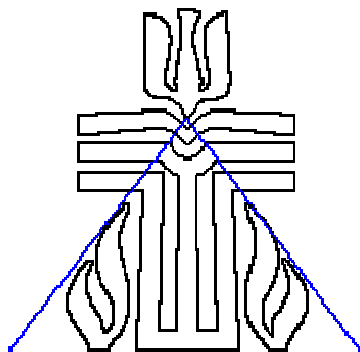


아마도 십자가와 더불어 가장 찾기 쉬웠던 것이 불이 아닐까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계시, 주권** 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할만한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출3:5).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꽃은 또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행2:3-4).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각자 방언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려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인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역사가 비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꽃이 느껴지십니까?

## 8. 삼각형



삼각형도 정말 찾기 힘든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따로 역사하시지만 하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에서도 꼭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 크리스찬 유우머

### <그래도 이건 좀...>

가끔 성경책을 우연히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죠? 이런 경험은 웬만한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QT를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거의 못읽고 지내던 김신실군...  
매일 아침에 성경책을 되는데로 펼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기를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구절은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마 27:5)였다.

조금 심각해진 김신실군...  
아무래도 그 말씀이 그날 그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성경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였다.

이제는 조금 불안해진 김신실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치기로 했다.

그가 다시 성경을 펼칠 때 처음 들어온 말씀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 13:27)였다.

### <그러면 이런 것은...>

19번 선을 보고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는 지칠대로 지친 노처녀 최신실 자매... 20번째 선을 보게 된 날 아침, QT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날의 성구는 여호수아 18장 13절-19절이었다고….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벤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앓달로 내려가서 아래 벤 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벤 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곁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뎀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 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그날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잘 사는지 어쩐지…^^

## 영원을 향해가는 우리의 삶

전 성균 장로님

길고도 긴 미네소타의 겨울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따뜻한 햇빛은 봄이 상큼 온 것을 알리고 있다. 자연은 이와 같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오는 사철이 뚜렷하고 이 계절의 변화는 아마도 세상 끝날 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의 자연은 돌고 돌지만 우리의 삶은 직선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마침내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시간과는 이별을 고해야 할 때가 온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고전 15:17-58)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일본의 한 신학자는 “영원이란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당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즉 나의 영원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익어가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영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더욱 진실하고 보람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며 이웃을 알뜰히 배려하며 살아서 영원을 위한 열매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 분들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영원을 위한 많은 열매를 준비하시고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요 특권이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며 부지런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화초가 만발하는 봄이 오고 머지않아서 신록이 우거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에 비교할 수도 있겠다. 새로이 맞이한 이 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나무를 가꾸어 주실지 모르겠다. 우리는 앞에 다가올 영원을 바라보면서 알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가꾸어 이 땅에서의 삶이 막을 내릴 때 그 동안 가꾸어온 열매들을 한 아름씩 안고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짐해 본다.

## 고 최인영 권사님을 추모하며

유병춘 원로목사님

교회에 오시는 것을 보면 대개는 친지의 인도나 소개를 받고 오시는데, 흥백기 집사님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 후 홍백기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이주해 오셔서 본 교회를 모교회로 삼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1984년 여전도회지 소망 3호에 권사님의 ‘나의 간증’이란 글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시고 경기여고를 졸업하셨습니다.

1971년 10월 26일 부흥회에서 삼상 12:23, 막 11:24, 살전 5:17절, 회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체험하는 은혜를 간증합니다.

관악산 아래 사당동에서 7년 8개월 하루도 쉬지 않고 시간도 어기지 않고 새벽에 교회 종을 치는 일과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세상 부귀영화를 초월해 신앙인으로 사는 데 관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영광 받으실 것이라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간증하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권사님의 간증의 글을 매듭지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책임감이 강하시고 사리가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허술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남에게 폐나 누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부군 홍성련 선생님의 정성 어린 사랑을 받으시며 가정 중심으로 자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며 잘 양육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시간이 나면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 바자회를 할 때마다 뜨개질 하신 옷가지, 장갑, 덧버선, 목도리 등을 참 많이 내놓으셨고 제가 복한 방문 때에도 어린이들을 위해 많이 주셨습니다.

남의 정성을 소중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새로 이사할 하실 때, 사철화분을 드렸는데 권사님은 정성으로 가꾸시어 10년 후에 보아도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의 고향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시며 뜨개질하신 열

매인 교회 건물을 마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부군 되신 홍 선생님과 유족에게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어 동거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고 권승림 장로님 영전에

전성균 장로님

어머님의 극진하신 믿음 안에서 고이 자라시고  
북녘땅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시며 월남하시어  
평생 좋은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사신 장로님

교회를 섬기시되  
정성으로 섬기시고  
올바른 판단과 지도력으로 섬기시고  
바른 길로 섬기시던 장로님

수려한 외모 못지않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장로님  
음악과 시사에 능통하시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아는 바 깨달은 바를 전해 주시고저  
끊임없이 알뜰히 애쓰시던 장로님  
어이 이리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장로님의 그 맑고 깨끗하신 모습과  
만날때 마다 반갑고 정답게 나누어 주신  
따뜻한 악수들을 기억합니다.  
누구의 말이건 정성으로 경청하시고  
조심스레 자기의 곤은 생각을 전하시던 그 단정한 모습  
우리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남아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것을  
복되게 생각하고 늘 그리워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내조하신 권사님을

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기라성 같은 세 아드님  
훌륭히 키우신 것을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극한 효성은  
이제 남아계신 어머니에게로 쏠리고  
권사님은 든든한 아드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지난날의 좋은 추억들을 되새기시며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장로님  
부디 저 밝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소서.  
우리는 장로님의 수려한 모습과  
아름다운 마음을 늘 그리워 하며  
후일 그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장로님  
편히 가소서  
편히 쉬소서  
우리 그날  
다시 만나 얼싸안고  
옛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고 이윤호 장로님 영결예배 기도문

권학주 장로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1 년 전에 이윤호 장로님을 이세상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그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이 겪은 것 같이 이윤호 장로님도  
이북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미국으로 옮겨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신앙으로 잘 이기시고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호 장로님은 우리를 말로 훈계하시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 한인회 회장으로 10 년 이상 우리 Community 를 섬기셨으며 또한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종이 napkin 도 반으로 찢어서 쓰시는 절약과 검소한 삶으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고장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기부(Donation)을 해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 분을 떠나 보내는 우리에게 섭섭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시면서도 늘 한인 사회와 교회를 염려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 하면 말씀 하시기가 어려우신데도 ‘교회는 별일 없느냐?’고 묻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장로님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지금은 주님과 영생을 누리시는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세상에서는 더 이상 장로님을 뵈올 수 없는 권사님과, 친척, 친지, 친구들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 하여주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권사님 지난 수년 동안 장로님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 하여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도 이윤호장로님의 삶을 본 받아 이 세상의 삶이 평탄치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으로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이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남국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 절차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09년 10월 31일)

## 고 이윤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오인성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8)”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with those who love him, those whom he has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Those whom God had already chosen he also set apart to become like his Son, so that the Son would be the first among many believers.

제가 고 이윤호 초대 한인회장님이 지난 10월 27일 소천하시고 한인회 차원의 커뮤니티 홍보를 하면서 이 회장님에 관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 버린 2003년 월간 Korean Minnesota Monthly가을호 인터뷰 기사를 찾아 한인회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윤호 초대 회장님의 생애를 짧게나마 기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인회를 대표하여 조사 요청을 장례위원회로부터 받고 제가 당시 3시간 이 넘도록 인터뷰해 게재했던 기사를 반복해 읽으면서 고인의 생애를 압축할 만한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과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는 두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호 초대 회장님께서서는 개인의 생애도 생애지만 한인회를 태동 시키기 위한 준비 활동과 초대 한인회를 설립해 한인 커뮤니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시던 50년대 초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한인 커뮤니티의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조명해 볼 때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이 아닌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윤호 초대 회장님은 진정 이 커뮤니티의 맏아들로서 소임을 충분히 다하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집안의 맏아들을 잃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잠시나마 그 분의 한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그 분이 남긴 유지를 되

새겨 보는 것도 앞으로 미네소타 한인 커뮤니티가 나아가는 방향에 등대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윤호 초대 회장님은 사업가이기 전에 전 생애 진정한 교육자 이셨습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과 강단에 서 있는 사람만이 교육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에 affiliated돼 있는 노스다코다 제임스 타운 칼리지에서 학업의 동지를 트시고 4년을 마치자마자 53년 회계학 석사 학위를 위해 미네소타 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입학 하여 55년에 석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분의 공식 교육기간은 끝나지만 그 이후부터가 이 분의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면모와 전 생애 기간동안 후학들에 대한 헌신과 공헌이 어땠었는가를 잘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몸은 학교를 떠나 있었지만 진정으로 후학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이 얻은 소중한 부를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 계속하여 후원해 오고 계셨습니다.

90년대 후반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모교인 제임스 타운 대학에 30만달러나 되는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대학의 동창회로부터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공식 인정받았고 미네소타 대학에도 물론 자신의 부를 지속적으로 환원함으로써 미네소타 대학 프레지던트 클럽(President) 회원 자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후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후학들이 54년부터 62년까지 미네소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하기 위해 도미했습니다. 당시 주지사 해롤드 스타센(Harold E. Stassen)의 주도로 시작된 ‘미 연방 경제 복구 기금 프로그램(a federal economic recovery grant program)’에 따라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대 복구를 위해 미네소타 대학과 서울대학의 자매 결연과 학생 교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 한국전쟁 전후 소수에 그쳤던 한국 학생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한인 커뮤니티의 팽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고 이윤호 회장께서는 50년대 초반 한인회 태동(53년)을 위해 활동하셨고 초대 회장을 54년부터 수행하게 됩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역사에 관한 한 자료에 따르면 이윤호 초대회장님은 1979년 인터뷰에 다음과 같이 인용돼 있습니다: “Lee was an important leader first in the student community and later in the immigrant settlement. He was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during the three periods: 1954-64, 1967-68, 1971-72.



이 중차대한 한국 전후 복구 시기 프로그램이 가동된 기간인 54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인회장으로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사저를 개방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동병상련’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들을 통해 한국의 장래와 발전에 밀접하게 접목돼 있었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분수령’이 될 전후 교육 프로젝트가 미네소타와 한국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진정한 ‘교육자’이셨습니다.

이들이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선배로서 후배들의 이민 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헌신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기업가로서 이윤호씨의 사업 현장이 당시 유학생 가족들에게는 학업을 지탱해 주는 아르바이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윤호 초대 회장님에게서 두번째로 읽혀 져야 할 부분이 역사적인 해안과 Civic Mind를 가진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Great Leader라는 사실입니다.

2003년은 미주 한인사회 전역에서 한인 이민 Centennial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미네소타 팀폴렌티 주지사는 역사적인 ‘한인이민 100년’과 미네소타 한인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제정해 미네소타 한인회에 증정했습니다.

제가 2003년 가을 인터뷰를 할 때 이윤호 초대회장께서는 ‘한인 이민 100년’을 회고하면서 맨 먼저 이땅 미국 하와이에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이 우리 한인들의 긍지를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곳곳이 지켜 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그 의미를 개진할 때 이민 선배들의 긍지와 삶의 자세를 온전히 전수하고 있는 그런 이윤호씨의 참모습을 가까이서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초반 내내 초대 회장께서는 ‘한인들이 언어의 민족이고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타민족과 종족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한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개탄하셨습니다. “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반비례한다”고 강조하면서 후세대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소명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열등한 다른 소수 민족들도 후세들을 통해 자신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구가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한인들이 앞으로 투표를 통해 집단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주류사회에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윤호 초대회장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정착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기인 50년대와 60년대를 거의 헌신적으로 바쳤습니다. 자신이 한인 회장직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희생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책임정신을 숭선수범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한인 사회 다른 리더들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오늘 미네소타 한인회 역사를 온전히 살아 있도록 씨를 부리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놓으신 분입니다.

오늘날 미네소타 한인사회의 가장 성공적인 자립형 모델로 주정부 예산 책정과 지원을 받아 내면 발전을 거듭, 한인 연장자들의 생활과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한인복지센터’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1991년부터 재직하셨습니다. 초창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기관에 손수 기부를 하시고 직접 발로 뛰며 크고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 동분서주하면서 언제나 지인들과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기부하도록 독려하셔서 오늘의 복지센터를 수성하는데 공헌을 하신 헌신적인 리더였습니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 미네소타 한인사회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뻗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윤호 초대 회장님은 오늘 미네소타 한인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이자 미네소타 한인 교회들의 다양한 성장과 모태가 됐던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십(Korean Christian Fellowship)’을 창립한 주요 구성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인은 전생애 신앙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처음 도미하여 장로교회와 affiliated된 제임스타운 칼리지에 48년 입학하여 학업을 마쳤고 50년대에는 미네소타 한인 커뮤니티 신앙공동체의 발원이 된 코리안 크리스천 펠로십 창립, 한인 장로교회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초대 이윤호 한인회장님과 이별을 앞에 두고 커뮤니티의 진정한 리더로서, Civic Mind를 가진 큰 지도자로서 삶을 살다가신 미네소타의 주를 믿는 성도들의 말로서의 종교적인 신념과 그의 교직(intertwine)된 공동체를 위한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고 이윤호 장로님 입관예배 기도

정총해 장로님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들의 존경스런 연배이시요, 이 고장 한인교포들의 대부가 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신앙의 선배요 동지였던 고 이윤호 장로님의 시신 앞에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91년 전 저희들의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그 불행한 시대에 우리 이윤호 장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조국이 일본탄압의 고삐에서 풀려났을 때는 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불행을 당해, 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서 또 멀고 먼 저 대양을 건너와 외지인 이 미국 땅에 우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일 전에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홀연히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가, 또한 때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도루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의 섭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높으신 경륜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윤호 장로님은 일찍 이 고장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는 이 고장 한인교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는 늘 주는 자로 살아 왔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저희 후생들도 그분의 너그러우신 마음을 본받아,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장로님은 자녀가 없었지만, 한인교포 자녀들의 성공을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늘 기뻐했습니다. 북한의 굶주림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늘 염원하고 살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60년이 넘도록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중하고 아까운 동포를 그만 주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끝내 이뤄지지 못한 이 장로님의 고국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옵소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조국의 통일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2009년 10월 30일)

## 고 이윤호 장로 하관 예배 기도문

이주인 장로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오나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90여년 전에 이윤호 장로님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 가시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 그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로서 이장로님 긴 생애에 하신 모든 일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특히 이 고장에서 하신 일이 많고 큼니다. 한인사회, 교민복지기관, 그리고 한인교회에 크게 이바지 하시고 공헌하셨습니다. “이 장로님 모르면 미네소타인이 아니다”란 향간의 말 그대로, 장로님 손길과 자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또한 ‘57년에 잠깐 이곳 Macalester 대학을 경유시에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고 ‘61년도에 미네소타 대학에 취업이 되어 오면서 장로님과 처음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을 가까이 모신 기회는 근래에 와서 교회일로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해결책을 필요할 적에 장로님의 강한 “leadership”을 그의 “unswerving commitment”와 “tenacious drive”로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의 끝없는 교회 사랑과 아끼심에 우리 모두가 감명 받았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그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광명한 천국에서 풀고 쉬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환희의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에 발붙히고 사는 인생인지라 슬픔이 먼저 앞섭니다. 더욱이 이제는 저희가 이곳에서 다시는 장로님을 못볼 것을 생각하면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순자 권사님, 그가 60여년간 남달리 가까이 서로 애끼며 사랑하면서 사시던 일생의 동반자를 여위셨으니 얼마나 석별의 슬픔과 애통함을 면키 어려우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권사님을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에게도 함께 하여주시옵기 기도하오며,

또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도 임재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009년 10월 31일